



보도 일시	2023. 1. 12.(목) 11:00 < 1.13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1. 12.(목)
-------	--	-------	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에너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 김규성 (044-203-5120)
	에너지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강진석 (044-203-5131)

## 한-독 실장급 에너지 협력위원회 개최

- 산업부, 獨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청정에너지 확대 논의 -  
- 수소, 에너지효율, 해상풍력, ESS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 추진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(장관 Robert Habeck)와 1.12(목) 화상으로 「한-독 실장급 에너지 협력위원회」를 개최하였다.

### 【 회의 개요 】

- ◆ 일시 / 장소 : '23.1.12(목) 17:00~18:55 / 서울 석탄회관 4층 중회의실 (화상회의)
- ◆ 참석자 : (산업부)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, 에너지정책과장, 에너지기술과장 등  
(독일) Dominik Schnichels(도미니크 슈니헬스)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
대외경제실장, 기후·에너지협력과장 등
- ◆ 주요의제 : 수소, 에너지효율, 재생에너지, ESS 등 에너지 신산업 및 원전해체 협력

- 한-독 에너지 협력위원회는 지난 '19년 에너지파트너십 체결 이후, 에너지 정책분과, 기술분과, 원전해체분과를 구성하여 분야별 정책, 기술 및 경험 등을 공유해 왔으며,
  - 이번 실장급 회의를 통하여 그간의 분과 활동 결과 및 성과를 확인하고, 향후 양국간 에너지 관련 협력 방안을 발굴하였다.
- 양국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달성 노력과 함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,

-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청정에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.
- 천영길 실장은 청정에너지 확대와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,
  - 재생에너지, 수소, 고효율 기자재, CCUS, ESS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청정에너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, 향후 독일 측과 관련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
  - 또한, 원전 해체 분야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재 원전 해체사업을 추진 중인 독일과 원전 해체 디지털화\*, 해체 기술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가자고 하였다.
    - \* 로보틱스·AI·디지털 트윈 등의 고부가가치 융합 기술 접목한 해체 기술
  - 독일 측은 에너지효율, ESS, 원전 해체 기술 등 협력 확대에 공감하며, 양국의 협력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.
- 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 간 실무 분과 논의 및 전문가 교류를 지속하기로 하였으며,
  - 금년 5월경에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「제5차 한독 에너지데이 콘퍼런스」를 통해 양 국간 에너지 파트너십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에너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규성 (044-203-5120)
	에너지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강진석 (044-203-5131)
	에너지정책관	책임자	팀 장	홍수경 (044-203-5150)
	에너지기술과	담당자	사무관	정권호 (044-203-5157)

